

오피니언

光日春秋

정용덕



해외에 다녀오는 길이면 의례히 방문했던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독일이나 일본 사람들이 신중하고 안정적이라면, 프랑스나 미국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개성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된다. 이런 논점은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조우하는 경우에 더 그러하다. 외국 어디를 다녀 보아도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처럼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성실하면서도 발랄한 젊은이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한국인의 역동성, 정치가 억눌러서야

과 특수성을 더 강조하는 21세기의 탈근대주의 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닌 역동성이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각 끝에 의례히 이어지는 단상 말 경탄할 만한 특성을 지닌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왕조 500년간의 유교 통치와 35년간 일제의 군국주의 통치까지 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처럼 발랄하고 부지런하고 "끼"까지 있는 것일까? 물론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을 급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역동성을 지닌 민족이기에 파란만

을 침해하는 형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가. 개개인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는 경우라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점이다. 흔한 예로서, 자기 집 마당의 눈은 열심히 치우면서도 집 앞의 공용 도로에 쌓이는 눈은 너나할 것 없이 방치하여 결국은 교통 마비가 초래되는 지경에 이른다. 정치는 바로 이처럼 개인 수준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양한

선호체계를 소유한 개개인이 각자 능력껏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또는 개인 수준에서는 난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자가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개개인의 활동 범위나 기준을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그 공동체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향에 있어서는 옳다고 해도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면 개개인의 창의성을 위축하게 되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위축

으로 이어진다. 20세기에 실험했던 공산주의나 파시스트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 경험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는 상호 조화를 기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선호와 자유로운 선택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공동체간 연계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비단 공동체 수준의 정치뿐만 아니라, 작건 크건 모든 형태의 조직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조직, 영리 추구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지만 창의성 또한 필요한 기업 조직, 그리고 좀 더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의 집행이 주된 업무인 군대 조직 등의 경우에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와 기준은 각각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것을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에 조화롭게 연계하는 정치는 언제쯤이나 가능해질까 생각해 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교조 교사마저 외면하는 '연가투쟁'

광주지역 전교조 교사의 절반 가량이 성과급 저지 연가 투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조합원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가 '성과급 저지 연가 투쟁이 전교조 교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가 투쟁이 전교조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2.4%에 불과했고, 연가 투쟁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교사도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조사결과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지급 등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부 강성 지도부의 투쟁을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교조 교사마저 외면하는 연가투쟁을 강행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의 주요 이유로 꼽는 교원평가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는 어느 조직에서든 일반적이고 확대되는 추세다. 많

은 대학에서도 매 학기 학생들이 교수

의 강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수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3년 주기로 평가하는데, 인사나 연봉과도 연계하지 않고 연수 계획 등에만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미 그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극히 초보적인 평가마저 막무가내로 반대하며 연가 투쟁을 강행한다면 이는 학생과 수업을 볼모로 하는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한 조사결과를 보면 교원 평가는 국민의 83%가, 시범학교 교원의 70%가 찬성하고 있다. 연가 투쟁은 이미 명분을 잃은 것이다. 전교조는 연가 투쟁이 학부모나 학생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교원 평가 반대 투쟁을 강하게 벌이면 벌일수록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美 공화, 선거 참패...외교정책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은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북정책이 유엔처럼 직접 대화 등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공화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았던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선거의 최대쟁점은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책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민까지 외면한 이라크전 등 독단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에게 기존 외교정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한·미 간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을 비롯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북정책이 유엔처럼 직접 대화 등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공화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았던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FTA 협상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가 대외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미국의 정치구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FTA에 소극적이거나 한국의 자동차시장 정책에 비판적이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이나 FTA,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협상이 허접이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된다. 정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 그리스어 'atopos'에서 유래된 아토피는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 그대로 아토피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오염된 주거환경과 먹거리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 역시 분명치 않다. 생활환경이 쾌적한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도 아토피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라니 뇌졸중 등 난치병들의 새로운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면서 '아토피 비즈니스'도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직·간접 치료비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웬만한 식품은 물론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아토피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있다. 교복제조회사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교복'이라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아토피



아토피 때문에 이민을 떠나거나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토피 치료에 소요되는 민만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환자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장기적 연구·유아는 4명중 1명꼴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성인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 소아질환으로 알려졌던 아토피가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기고

김충제



댐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재산이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방류하여 각종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수력발전을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한다. 이러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댐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수몰지역의 발생 등 환경과 삶의 질에 밀접한 문제들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과거에 개발과 성장, 그리고 공급중심의 물 관리를 위해 추진되던 댐건설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대운동장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넓은 개활지를 활용하여 멸종위기 식물종으로 남부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히어리(일명 송광남관화)를 복원하기 위한 히어리 생태원 및 인공습지, 수원함양림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또 물문화관 정비사업은 올해 공사를 마치고 12월경에 개관할 예정이다. 크게 2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물문화관은 2각 물과 주암호, 그리고 주암댐에 대한 다양한 시청각자료와 입체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주암호 수몰지구준을 조성하여 주암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몰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댐

우리나라 댐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이 건설되는 댐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파괴해감, 수질보전, 친환경공간 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도 신규댐과 같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새로운 댐 건설 및 관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 물해 준공식을 치른 장흥의 장흥댐은 댐비탈면녹화, 생태통로 및 어류산란장 조성, 지역문화유적(지동마을) 보전, 생태문화공원조성 등 다양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광양의 수어댐도 올해 댐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댐은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댐으로의 전환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기관만의 일이 아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댐으로의 발전은 시민과 댐이 함께 만들어 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댐은 한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댐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water 전담관리처장)

생리대 내버린 장면 사진 찍어 올린 이웃 너무해

중학생인 딸과 미장원에 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내문에 사진이 붙어 있어 읽었다가 깜짝 놀랐다. 일부 주민이 여성용 생리대를 계속 내다 버리자 참다 못해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물레 카메라를 설치해 아파트 전체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딸과 함께 민망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여성이 수치심도 모른채 일부러,

그리고 지속적으로 창밖에 버렸을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하는 등 속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굳이 사진을 찍어 공개해야만 했을까. 한 지붕 아래 사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로 보듬고 이해해줘도 부족하지 않겠나. (유연희·목포시 무인동)

기고

박래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 핵실험의 충격이 체 가지기도 전에 일본 우경화를 이끈 고이즈미에 이어 일본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자신의 임기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자유권 보유와 집단적 자유권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핵실험의 충격만큼이나 놀라운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일본의 우경화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는 일이 그 무

은 해 11월 최수봉의 '밀양경찰서투탄의거', 1921년 9월 김익삼의 '조선총독부투탄의거', 1922년 2월 오성륜, 김익삼, 이종암의 '상해폭탄지적의거'등 치열한 암살·파괴활동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923년 1월 신채호가 집필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던 의열단은 1932년 10월 조선정치군사간부혁명학교를 개교하여 1933년 6월 제7차 대표회의에 간부학교 졸업생 이우사·노석성 등을 국내에 파견하기도 했으나 1935년 7월 5일 조선혁명당, 의열단, 신한독립당 등 민족주의 단체가 모여 조선민족혁명당이 출범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애국의 불꽃, 의열단

옛보다 중요할 것이다.

11월 9일은 의열단이 조직된 날이다. 한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일본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3·1운동이 있던 1919년 11월 9일 중국 만주 내의 지린성 파오촌 밖 중국 농부 집에서 김원봉, 이종암 등 13명의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만든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비타협·폭력노선을 지향했다. 소수의 결사를 조직해 암살·파괴활동 등으로 한민족의 애국성을 자극해 민족폭동을 유발해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의열단은 1920년 9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투탄의거', 갈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칼날 같은 일제의 감시와 압박을 뚫고 오히려 그들의 심장에 총탄과 폭탄으로 응수했던 숭한 의열단 열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두려움보다 한민족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며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작진으로 향하던 의열단 열사들의 그 마음, 오늘날들은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고 아울러 아이들의 가슴에도 깊이 되새겨 주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가 아닐까. (광주지방 보호총)

항상 만원인 병원 6인실 더 늘리면 안되나

얼마전 친 언니가 급히 수술을 받게 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해 병원비를 걱정했다.

병실료라도 아껴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6인실을 찾았지만 자리가 없었다. 남은 병실은 1인실과 3인실뿐이라 3인실에 입원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3인실 하루 병실료는 7만원으로, 6인실의 3~4배 수준이다.

입원날짜를 미룰 수 없었던 탓에 입원하긴 했는데, 수술비까지 포함하고 나니 비용이 적지 않았다. 언니는 수술 후에도 입원 치료비 생각으로 힘들어했다. 그래서 수술 뒤 회복 기간이라도 6인실로

옮기려고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쉽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퇴원했다.

병문안을 가다보면 6인실은 언제나 만원이었고 특실·3인실은 여유가 있다. 환자들도 일단 3인실로 갔다가 6인실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다면 6인실을 늘릴 수는 없을까.

경제적인 비용을 제쳐두고서라도 서민들에게 6인실은 여러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절점이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곳에서 누워 있어야 하거나 다른 생명이나 생기기 어렵겠다. (임유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